주일 메시지 요약 **2026년 10월 11일**

두 가지 악 렘2:4-13

우리가 살아 가는 중에 Turning Point가 되는 일은 항상 있지만 올 해는 우리에게 조금 더 의미 있는 해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먼저 선교에 대한 것을 보면 남미에 렘넌트 운동이 시작된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쿠바와 니카라과 그리고 과테말라에 이어 온두라스에서도 집회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미를 두고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중 하나가 100팀인데 그 동안에도 산발적으로 준비된 제자들을 10일 정도씩 파송을 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알론소 목사님을 온두라스에 한 달 간 파송하여 6개 도시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찾을 것입니다.
온두라스의 Jose Gonzales 목사님은 이 말씀 운동 안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지만 기존 목사님들과 단체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좋은 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 년에는 온두라스 National Conference를 계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달에는 리카르도 목사님이 자비량으로 니카라과에 있는 자기 옛날 교단의 목사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돌아왔고 그 교단의 니카라과 대표는 이미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이스라엘 목사님은 장로교 출신인데 멕시코 장로 교단과 연결하여 목사님들을 만나는 중에 있으며 내 년에는 장로교 목사님들과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물어 왔습니다. 범위나 규모를 크게 하시는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에도 중요한 변화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느 날 3시대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후에 많은 말씀들을 주셔서 정리를 하고 있고 하나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메시지를 통하여 계속 전달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담은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헌신과 봉사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뜻을 정한 300%의 정신으로 이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

1. 두 가지 악

1)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4절을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2) 그 시대는 우상 숭배가 너무나 심한 시대였습니다.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3) 이런 정도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일어난 죄악을 하나님이 2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버린 것과 그들이 스스로 나와 상관 없이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하십니다. 열심이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터진 웅덩이였다는 말씀입니다.
4)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들였지만 결국은 아무런 소용 없는 터진 웅덩이만 파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한 모든 일은 이렇게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신자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이런 방법으로 잘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다른 것입니다.
5) 하나님 떠난 인간을 표현한 또 하나의 결론입니다. 좋은 물이 나올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웅덩이를 팠을 것입니다. 웅덩이가 아니고 생수의 우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터진 웅덩이가 되었고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6) 때로는 좋은 물이 나오지만 그것을 가두지 못하여 아무 소용 없는 짓이 되고 마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알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결과입니다.
7) 운명이란 단어가 이런 뜻일 것입니다. 알겠는데 안 되고 되고 있는 데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없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결과도 있는데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눈에 뻔히 보고도 흘려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8) 이것이 운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역전하고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꺼꾸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웅덩이를 하나님이 파시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9)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이런 응답을 받는 증인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한 수 많은 증인들이 있고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영적인 힘이 있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납니다
10) 렘29:13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떠나셨던 주님도 돌아 오십니다. 6절 마지막에도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질문하라는 뜻입니다. 8절 시작에도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았고 율법을 다루는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1)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웅덩이를 스스로 파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없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안에 한 치유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는 웅덩이를 스스로 파지 않게 됩니다.
12) 이것이 터진 웅덩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이 되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우물을 평생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자연적으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되어지는 응답이 되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터진 우물은 없습니다.
13) 사55:3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면 영이 살고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통하고 온유한 자가 되고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14) 그러면 우리 인생 중에 스스로 파는 웅덩이가 없어지고 전부 생수의 우물이 되고 터진 우물이 역전이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이 모든 것이 한번에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나 웅덩이는 다 팝니다. 오늘도 파고 있고 내일도 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판다고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이 파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참 된 생명의 우물을 파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감사로 받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 일에 증인되면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웅덩이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오늘도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